2022 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신문모니터

•문서번호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_부산_04
•수 신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복성경)
•제 목 [부산 선거보도모니터 보고서] **정치논리에 가둔 교육감 선거, 외면받은 선거구 획정 이슈 유권자 선택 도울 지역언론 선거보도는 어디로**
•날 짜 2022년 5월 4일(수요일)

[부산] 정치논리에 가둔 교육감 선거, 외면받은 선거구 획정 이슈 유권자 선택 도울 지역언론 선거보도는 어디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부산 신문2차 모니터보고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 28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부산민언련이 작성해 5월 4일(수요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까지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대표자 선출 이외에도 지역사회 쟁점 형성, 지역정치 활성화 등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어느 선거보다도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지방 선거 보도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와 같은 해에 치러지는 탓에 지역 신문에서는 대선 지지율과 지역구의 판세를 연결하는 보도 경향을 띠고 있고,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좀처럼 지역정치로 관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김석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25일),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교육감 선거가 본궤도에 올랐다. 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획정을 무시한 채 '선거구 쪼개기 안'을 의결했고(27일), 이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치개혁부산행동 등 시민단체가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사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스트레이트*	23	23	46
기획기사	0	0	0
인터뷰기사	0	1	1
의견기사	1	3	4
사진기사	0	0	0
기타	0	0	0
합계	24	27	51

△ 〈표1〉 선거보도 건수 및 기사유형별 건수(*스트레이트+해설 유형도 포함)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부산지역 신문의 지방선거 관련 기사는 총 51건으로 지난주 35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국제신문 24건, 부산일보 27건으로 두 신문사의 보도량은 비슷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해 인터뷰 기사가 1건 있었다. 의견기사(사설, 칼럼)는 국제신문 1건, 부산일보 3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무산에 대한 비판, 인물 선거에 대한 기대, 지역경제활성화 공약 경쟁 촉구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두 신문사 모두 지방선거 관련 기획기사는 없었다.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전달·검증·분석)	0	5	5
공천/경선	14	13	27
선거판세·여론조사	3	0	3
행보/동정	6	3	9
선거전략	0	1	1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0	0	0
선거사무	2	1	3
기타	0	4	4

△ 〈표2〉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선거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시장	4	4	8
교육감	1	3	4
구·군청장	16	13	29
광역의원	1	2	3
기초의원	2	1	3

△ 〈표3〉 선거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공천/경선 관련이 가장 많았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 치중돼 있었다. 국제신문은 공천/경선 14건 중 13건이 기초단체장 선거였고, 부산일보는 공천/경선 13건 중 9건이 기초단체장 선거였다.

특히 정당 중심으로 선거 보도를 이어가는 탓에 선거보도가 정당의 시간에 맞춰져, 공천/경선의 과정과 결과 전달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당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더불어민주당	5	4	9
국민의힘	10	2	12
민주당+국힘	6	8	14
군소정당	2	1	3
무소속	1	1	2

△ 〈표4〉 정당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 사진에서 제외한 국제신문

선거보도가 정당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거대 양당 치중 보도 경향도 여전했다. 특히 이번 주 국제신문은 국민의힘의 공천/경선 과정을 주요하게 보도해, 지방선거 관련 기사에서 국민의힘을 단독으로 언급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4개 진보정당(노동·녹색·정의·진보) 부산시당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거대 양당은 하마평만으로도 기사를 쓰면서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밝힌 진보정당 기초의원 후보 11명에 대해 취재는커녕 언급조차 없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국제신문은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노골적으로 제외해 더욱 문제적이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울산 3파전 속 보수 단일화 촉각〉(4/25, 3면)**과 **〈초반 판세 변수…부산은 두 현안 국정과제화, 경남은 김경수〉(4/29, 4면)** 기사의 사진에서 연이어 김영진 후보를 제외했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는 올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의사를 밝혔고,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선거연대를 이루기도 했다. 가장 빨리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지역언론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도 않은 박형준 시장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국제신문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이슈 3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 울산 3파전 속 보수 단일화 촉각

7곳 확정- 민주 이번주 완료
경남 국힘 후보 박완수 공천
경기, 윤심 업고 김은혜 나서
대구, 홍준표 여유있게 확정

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이 잡히고 있다.

24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도 지난 주까지 인천·강원·부산·울산·대구·전남·충북 등 7곳의 공천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주 나머지 10곳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부울경의 경우 부산은 일찌감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민주당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대결이 확정됐다. 울산은 국민의힘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공천권을 따냄에 따라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무소속 박맹우 전 울산시장 간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박 전 시장이 재선한 보수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남은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누르고 결선행 티켓을 따냈다. 민주당은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린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심(尹心)'을 업은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주자의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30일 후보를 확정한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이 일찌감치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진동 급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인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사했다. 인천은 민주당의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강원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대결로 확정됐다. 2010년 강원지사에 당선됐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상실했던 이 의원이 12년 만에 재도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 뒤 가사회생한 김 전 의원이 황상무 전 KBS앵커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구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공천권을 따냈다. 본산에선 민주당 서재헌 전 상근부대변인과 맞붙는다.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지사와 옛 친박(친박근혜)계 맥심으로 보수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호남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이 맞붙는다. 충북지사를 두고는 분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과 윤당선인의 특별고문인 강영환 전 의원이 맞붙어 전·현직 권력의 대결 구도가 연출됐다.

정유선기자 freesun@kookje.co.kr

4 정치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국제신문

초반 판세 변수… 부산은 두 현안 국정과제화, 경남은 김경수

〈엑스포, 산업은행 이전〉

사·도지사 선거 관전포인트

국정과제 탄 국힘 박형준 호재
불발 탄 민주 변성완 공세 전망
울산 보수 후보 단일화 난기류
민주 송철호와 3파전 불가피
경남 국힘 박완수·민주 양문석
'숨 전 지사 심판·동정론' 촉각

국정과제(부산) 구도(울산) 김경수(경남). 6·1지방선거 대진표가 완성된 부산·울산 경남 시장·도지사 선거의 주요 변수다. 이런 변수가 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선거 초반 판세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장 선거는 2030부산엑스포유치와 KDB산업은행 이전의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주 발표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선 가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여러 차례 인수위를 찾아 새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원 입장을 끌어내기도 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박 시장의 정치력에 대한 호응도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의 경우 박 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 시장이 직무 정지 기간을 미분명분은 주요 현안 추진과 시장 공백 최소화다. 하지만 국정과제 반영에 실패하면 박 시장의 시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거센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 전 대행은 지난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 정지를 놓추는 박 시장을 겨냥해 "시민 검증을 받으라"고 공세를 펐다.

울산시장 선거는 구도가 최대 변수다. 민주당 송철호 현 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단일화 성사가 최대 관심사다. 초반 단일화 분위기는 난기류다. 박맹우 전 시장은 28일 울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울산시장 최종 후보가 발표된 후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김두겸 후보에게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추가 제안 없이 보수 후보 단일화는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후보도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후보의 이날 입장은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3자 구도 시 송 시장의 재선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후보와 박 후보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경남도지사 대진표도 확정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정의당 여영국, 무소속 최진석 후보와의 4파전이다. 대선 표심을 보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대선 때 경남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3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8.24%,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47%의 득표율을 보였다.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민심의 향배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도정 공백을 초래한 '김경수 심판론'이 커지면 국민의힘에, '동정론'이 일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메가시티 표심'도 주목된다. 박완수 후보는 부정적이지만, 양문석 후보는 적극 추진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 vain@kookje.co.kr

△ 국제신문, '김영진 부산시장후보' 사진에서 제외한 기사 ©국제신문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가덕신공항!
지방선거 의제 확장도 지역언론의 몫

국토교통부 용역결과, 예타 면제 등 가덕신공항 관련 이슈가 이어지면서, 이번주 지역신문의 주요면은 가덕신공항으로 채워졌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가덕신공항,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굵직한 현안 외에 이렇다할 지역 현안이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일보 칼럼 〈'정당 없는 지방선거' 가능할까〉(4/29, 30면)도 정치국면이 중앙정치판 이슈로 뒤덮이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지역신문은 좀처럼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현안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일보의 변성완 후보 인터뷰 기사 **〈"참신함·전문성·행정경륜,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뛰어나"〉(4/27, 5면)**이다. 기사 제목에서부터 박형준 시장과의 대립구도를 부각했고 인터뷰 질문도 후보만의 공약이나 철학보다는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상에서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산업은행 이전 등이 주를 이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의제가 지역내 균형발전·개발로 확장되지 않고, 국책사업급 규모에만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더군다나 변성완 후보의 경우, 지난 보궐선거 경선 당시 내놓았던 정책과 이번 정책 간

차이는 무엇인지, 박형준 시장이 추진해 온 청년정책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 후보의 답변에 대한 부산청년의 입장이나 전문가 의견은 무엇인지, 새 정부의 탈원전 폐지 기조에 대한 혜안은 무엇인지 등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백화점식 질문에 앵무새식 답변이 이어져 심층성이 부족했다.

부산일보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제 23729 호 5

"참신함·전문성·행정 경륜,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뛰어나"

민주당 변성완 후보

부산엑스포 개최 정부와 함께 노력
인재 양성 위해 지역대학 부활 절실
산은·수은 떠나지로 부산에 와야
반성·쇄신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

"행정 경륜과 전문성에 있어, 특히 새로운 바람이라는 측면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보다 제가 훨씬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무엇보다 이길 수 있다는 결기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야지 박 시장이 등판을 안해 선거 분위기가 드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선거판이 벌어지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오랜 기간 부산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명문이 닫힌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민간 기업을 강제로 끌어오기보다, 지방 대학을 살리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지난 25일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진행된 〈부산일보〉와의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25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와 보조를 맞춰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희 기자 jjh@

-출마 계기와 포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방안과 부지 활용 계획은.

-은 당선인의 산업은행 이전 공약에 민주당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산은 이전에 대한 생각은.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부산. 해결책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 세일즈' 구체적인 방법은.

변성완은…

행정부시장·시장 권한대행 역임
김해신공항 불가 판정 받아 내

부산 배정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행정고시 합격 후 고향인 부산으로 첫 발령을 받아 해운대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지원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참여정부 마지막 행정부시관을 지냈고 부산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에 이어 시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퇴임했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시절 복합재개발,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국제관광도시 선정 등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에 성과를 냈다. 특히 시장 권한대행직을 1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며 부산 최대 현안인 김해신공항 불가 판정을 이끌어 내 가덕신공항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

소탈한 성격에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행안부와 부산시 근무 시절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다. 또 중도적 성향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 공략에 적임자라는 민주당 내부의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선 신인으로 25.1%를 득표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올 3월 대선에선 부산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다.

변 후보의 부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시의원을 지낸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다. 지난해 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부산에 터를 잡고 변 후보를 돕고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자인 조 전 부의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여성·복지 계를 중심으로 활동한경을 넓히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희경 기자 himang@

프로필

1965년 부산 출생(만 56세)
부산 배정고 /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의전행정관
-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 행정안전부 대변인
- 부산시 행정부시장
- 부산시장 권한대행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총괄본부장

△ 부산일보, '변성완 부산시장후보' 인터뷰 기사 ©부산일보

만 18세 시민이 처음으로 뽑는 교육감 선거
정책과 철학, 교육자로서 걸어온 길이 궁금하다

지난달 25일 김석준 교육감이 6·1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지난해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을 거쳐 단일후보로 선출된 하윤수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언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사상 첫 양자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양자구도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진보 수성이냐 보수 입성이냐'와 같은 정

치이분법 논리가 교육감 선거를 이끌고 있다. 거대 양당의 교육계 대리전 격으로 교육감 선거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언론이 나서서 정치 논리로 이끌고 있다.

부산일보 **〈하윤수 교육감 후보 부산서 당선인 독대〉(4/25, 6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하윤수 교육감 후보와 별도로 회동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 당선인과 하 후보의 '인연'을 부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 후보의 연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면서 "선거법상 직접적인 연대는 불가능하지만 하 후보가 (중략) 박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했다.

> ***윤 당선인**은 평소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교육감은)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개념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의 교육감이 대부분 진보 인사들이다"며 "선거법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공개적으로 지원 활동을 벌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수 후보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대거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부산일보 〈하윤수 교육감 후보 부산서 당선인 독대〉(4/25, 6면)*

교육감 선거보도에서 또 발견되는 문제는 두 후보에 대한 평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3선 도전으로, 그간의 정책과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하윤수 후보 역시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주요 인사인 만큼 충분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김석준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하윤수 후보의 '발언'에만 의존해 정치이분법에 근거한 네거티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까지 한 달이 남았다. 유권자는 지역신문이 교육감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구태는 과감히 내려두고, 지역교육계 현안을 키워내고, 다양한 계층과 관계자·전문가의 평가와 공약 비교로 교육감 선거보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만 18세 시민의 첫 교육감 선택에 지역신문 기사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

선거마다 새롭게 유입되는 유권자
선거구 획정, 언론은 더 친절할 수 없나

지난달 27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대폭 수정해 4인 선거구 10개 중 9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또 위원회가 27곳으로 제안한 3인 선거구도 25곳으로 줄여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다. 그동안 정치권이 함께 외쳤던 정치개혁 약속도 멀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신문에는 기사 1건, 사설 1건, 부산일보에는 기사 1건이 있었다. 중대선거구제 무산으로 인해 진보 정당들이 반발했다는 사실 전달에만 머물러, 유권자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의미와 맥락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기사의 초점이 ‘선거구제 변화’, ‘정치개혁’보다는 ‘진보정당과 거대 양당 간 밥그릇싸움’에 맞춰지면서, 유권자 민의 반영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또 중대선거구제 무산에 묻히긴 했지만,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4인 선거구가 마련된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만큼 부산 유일 4인 선거구 ‘기장군 다 선거구’ 유권자를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정치개혁 측면에서의 의의 등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 4인 선거구제가 정치개혁의 만능키는 아닌 만큼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겠으나 사설에서의 비판이 전부였다.

중대선거구제는 오래된 정치개혁 과제였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선거마다 유권자는 새롭게 유입되고 있다. 지난 선거와 차이가 있다면 이는 선거에 대한 기본 정보로 유권자에게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친절한 지역신문을 기대한다.

*모니터 대상 : 2022년 04월 25일(월요일) ~ 04월 29일(금요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2022년 5월 4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